

近代 韓國 文學과 日本 留學 - 이광수와 염상섭

1. 이광수와 유학, 그리고 계몽

1) 한국의 근대 유학생 계보

1876년 이루어진 한일수호조규(병자조약 또는 강화조약)은 최초로 외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이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김기수를 일본에 수신사로 보냈으며 1880년에는 김홍집을 파견한다. 김기수의 수신사일기 <일동기유>에는 일본의 풍물(육군병기공장 시찰), 외무부 인사들이나 이등박문의 인물평 등이 실려 있어서 당시 일본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880년 무렵에는 김기수, 김홍집, 어윤중 등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사대사(事大司, 대청외교), 문린사(文隣司, 대일외교) 등 12사로 이루어지는 통리기무아문 설치되었으며, 1881년에는 중국에 영선사(領選使), 일본에 紳士遊覽團을 파견한다. 선진국의 기술 습득을 위해 중국 천진으로 간 38명의 유학생들은 나름의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일본에 파견된 홍영식, 어윤중 등 관리 12명과 유길준, 이상재 등 62명의 시찰단은 그 나름의 성과를 얻는다. 개화풍조에 반발하는 유림층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 신사유람단은 암행어사의 명목으로 극비리에 출발하였다고 한다. 1881년 5월에서 8월까지 시찰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유학생 파견을 시기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공부를 한 사람(유길준, 유정수-경응의숙, 윤치호)들이다. 1881년 9월 제3회 수신사 조병호와 그 수행원 유학, 1883년 서재필 이하 44명이 경응의숙에 입학하였다.

제2기 갑오경장을 계기로 1895년 경 200여 명의 정부 파견 유학생이 경응의숙 입학. 1897년 64명 成城學校 비롯 여러 학교 입학. 일본육군사관학교에도 수십 명 입학. 이때 경응의숙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삭발하고 일본 옷을 입었다고 한다. 잡지 <태양>에는 내부 대신 박영효가 일본유학생 300명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그중 120명은 이미 일본에 와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시험의 해괴망측함을 비꼬고 있는데, 시험이란 것이 '지력의 여하'가 아니라 '오직 용모와 풍채의 여하'였다는 것이다. 1903년에 전권공사 고영희가 관비생 25명과 사비생 4명, 모두 29명의 자격을 박탈해서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는데, 관비생 중에 이인직(당시 都新聞社 현 동경신문의 전신의 견습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3기 1904년 11월 한국황실 특파 유학생 50명 東京 부립일중(府立一中) 및 順天중학, 栗田실업학교 등에 입학. 육당 최남선(당시 15살, 최연소. 東京부립제일중학 특별반 A 반. 재

학기간은 1904년 11월 2일에서 12월 9일, 부모의 병 때문에 일찍 귀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4기 1905년에서 1906년 경 사비유학생의 경우, 일본 문부성 통계에 의하면 1908년에 270명, 1909년에 323명, 1910년에는 420명이 일본으로 유학 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가 되면 대부분이 사비생 혹은 공비생이었다.



2) 초기 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 및 작가의식

이광수는 1905년 8월 경 손병희의 주선으로 일진회 장학생이 되어 東京으로 1차 유학을 떠난다. 9월경에 어학준비학교인 동해의숙에 입학 1906년까지 수학한다. 1906년 3월부터 대성중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이 학교에는 일진회 학생회 20여 명이 있었다. 1906년 7월 학비중단으로 중도 퇴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12월 경 귀국하여 1907년 3월 경 다시 東京 행, 그해 3월경에 백산학사에 입학한다. 백산학사는 지금의 文京區 白山区에 있는 동양대학의 전신이거나 그와 관련 있는 학교로 추정된다. 이보경(당시 이광수의 이름)의 후견인 겸 보증인은 麴町區 中六番町 50번지의 申海永. 원래 주일 한국공사관이던

곳이 외교권이 상실된 1905년 11월 이후에 유학생 감독부로 변한 곳이 위의 주소. 1907년 4월 학부 파견의 감독관으로 東京에 온 신해영은 1895년 경응의숙에 재학했고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평의원이었던 자로, 학비는 한국정부가 지출하며 신해영이 보증인으로 있는 한 이광수의 중학과정은 순탄하였다. 1907년 2월 초 이광수는 다시 독일. 반년 동안 예비학교의 일종인 백산학사에서 공부하고 1907년 9월 10일 명치학원 보통부 3년에 편입한다.

(가) 인도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사랑

1차 유학 시절부터 이광수는 문사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는 일본을 휩쓸고 있던 문학작품과 사상 논문들을 탐독하면서 그 스스로도 소설과 평론을 겸해서 쓰는 문사 사상가를 지망하고 있었다. 그가 이때 <사랑인가>와 <무정>, <어린 희생>등 단편을 쓰는 한편으로 <今日 我韓青年과 情育>등 여러 평론을 발표한 것은 그를 방증한다.

明治학원 시절은 이광수에게 있어 경제적 고충도 없는 안도감과 안정감이 가득 찬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춘원을 키운 분위기는 무엇보다 영어로 시작되었고, 찬송가로 끝을 맺었다.' 서양식의 기독교 학교였던 明治 학원 내에서도 이광수는 영어를 비롯 어학에 대단한 재질을 보였다. 이광수는 1919년 1월에 쓴 독립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랜디스 선생에게 교정을 부탁한다. 이광수가 남긴 영어로 쓴 글은 많지 않고 허영숙에게 보낸 1922년 4월 20일자 영문편지와 자작 영시 두 편 정도지만 편지를 쓸 당시 경신중학 영어교사이기도 했다. 어학에 대한 이광수의 재능은 14세 나이에 일본어 교사 노릇을 했다던가 "10여 명 M(明治학원)학교에 와 있는 조선 학생들의 작문이란 작문은 모조리 내가 지었다. 그것은 내가 어학의 힘이 나은 때문"(대한유학생회학보, 창간호(1907.3), 학보난)이라 자부한 것이라든가 문일평이 중학 4년 때 한국어로 한 연설을 통역한 것, 1908년 5월 23일 문학회 연설부에서 행한 연설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사 명백하고 태도 유유하며 연설로서는 최상급"(위의 책)이라 칭송받은 것 등에서 알 수 있다.

明治 학원 시절 그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준 것은 기독교였다. (이광수는 당시 明治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W 라는 늙은 미국 선생 한 분만이 진실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아서 나는 무척 그를 숭배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이학박사 마틴 와이코프임이 분명하다) 기독교에서 다시 그를 이끌어간 것은 톨스토이주의였다.

이광수는 여러 곳에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톨스토이, 예수, 석가의 영향을 순차로 받아서 나의 무저항심은 더욱 깊어지고"(<내가 속할 유형>)라고 했으며, 1930년도 어떤 잡지의 앙케이트에서는 톨스토이, 예수, 불타, 도산의 순으로 적고 있다. 그가 톨스토이에 접하게 된 것은 동급생 山崎俊夫에 의해서였다.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저

서를 읽게 된 것은 중학 3년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로는 17세, 내게 톨스토이 책을 빌려준 이는 산기준부(山崎俊夫)라는 동창생이었습니다. 산기준부는 그 후 慶應 문과를 졸업하고 『제국문학』등에 단편작품을 발표하더니 이내 소식이 없으나 꽤 단아한 청교도적 인물“(〈다난한 반생의 도정〉)이라고 회고했다. 산기는 춘원보다 한 살 위 1891년 생. 그는 죽기 전 남긴 자작 연보에서 明治학원 시절의 이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남겼다. “나는 이 미션 스쿨에 겨우 2년 간 다녔지만 그 2년 간은 내 생애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남겼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며, 문학이 그 다른 하나이다. 이 두 종류의 씨앗을 심어준 것은 이보경이라 부른 조선인이었다. 대체 이 학교에는 조선인이라든가 대만인 생도가 매우 많았다. 이군은 우리 집에도 자주 왔다.(생략) 나는 이 아이에 대해 담담한 애정을 품었다. 와이코프, 랜디스, 라이샤워 등 미국인 교사의 집에도 자주 놀러다녔다”

춘원의 기록에 의하면 산기는 얼굴이 아름답게 생기고 “예수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나 몸과 마음과 행동이 참 깨끗하였다”(〈그의 자서전〉)산기나 춘원이나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얌전한, 예외적 존재로서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 달라’라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지닌, 그래서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들은 성경 얘기를 같이 하며 지냈는데, 특히 산기는 집단 폭행을 당해도 그들을 탓하기보다 왼쪽 뺨도 내미는 식이었다. 산기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수신시간에 영어로 전쟁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산기를 보며 춘원은 감격했던 것. 이 非戰論이 당시 톨스토이 사상의 시대적 의의였다.

일본에 있어, 톨스토이의 존재는 明治기간 전체를 걸쳐 압도적인 모습으로 군림했다. 톨스토이는 1904년 1월 러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반전론을 전개하여 전쟁은 광기이며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가 러일전쟁이 니콜라이 2세의 잔악함과 일본 부유층의 악덕에 의해 착한 양민이 학살될 뿐이라는 것, 자기는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니고 두 나라 노동자 편이라는 것을 주장한 팜플렛 <반성하라>(1904.4)가 일본 사회정당의 창설자이며 후에 대역사건의 주모자로 처형된 幸徳秋水와 그의 동지 堺利彦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이광수가 파악한 톨스토이주의는 한 마디로 박애주의,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였으며 이는 이광수가 평생 매달렸던 사상이었다.

그가 ‘극단의 크리스찬’이 된 것은 가장 뚜렷한 종교체험이었고 明治학원 입학과 함께 일찍이 이루어졌다. 이때 그에게 참기독교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木下尙江의 <불기둥>등 소설을 읽은 감동과 톨스토이를 접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木下尙江(1839-1937)은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가로 노일전쟁 때 반전소설 <불기둥>을 써서 반전운동을 했고 노동문학과 사회운동을 한 작가. 기독교 사회주의 잡지인 <新紀元>을 주재하기도 했다. 이광수는 1907년 16살 때 <불기둥>을 읽고 ‘자기 몸이 거의 소설 속의 인물이 된 것처럼 말과 행동이 아주

온순 겸손하게'되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정의, 민중에 대한 봉사, 반전론, 연애지상주의, 무교회주의 신앙 등 '木下에게서 얻은 기독교의 이상'을 좇아서 홀로 행동하는 기독교인을 실천해갔다.

이광수의 일본어 소설인 「사랑인가」는 明治학원의 교지 <백금학보>(제19호, 1909.12)에 게재가 되었는데, 12월 21일 이광수의 일기를 보면, '시험 끝났다. 모두 옥에서 나온 것 모양 좋아라 한다 -나도 좋다. 내 처녀작이라 할 만한 「사랑인가」가 <OO학보>에 났다. 기쁘다. 괜히 기쁘다. 부질없는 기쁨이다. 나는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아아 결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그의 최초의 소설은 일본어로 된 「사랑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이 중요한 점은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나 이광수의 최초 소설이라는 점에 사실 무게가 더 놓이나 여기서는 그 소설에 이광수의 유학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문길은 춘원 이광수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된 인물이다.¹ 혈서를 쓴다든지, 철도자살을 기도한다든지, 미소녀를 사랑하는 행위는 당시 일본 학생 사회에서 유행이었다. 이 소설의 미사오란 인물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으로, 친구인 山崎俊夫와 함께 동시에 사랑했던 하급생 熊谷直正(熊谷直正)이었다.²

1918년 <청춘>에 발표된 단편 <尹光浩>는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 윤광호는 동경 K대학 경제과 2학년생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생이다. 그런 그가 사랑하고 기대는 인물은 김준원이라는 선배 유학생이다. 그와의 사랑이 날이 가면서 틈이 생기고 서로 멀어짐에 따라 윤광호는 우울과 적막감에 싸이게 된다. 그런 윤광호가 우연히 P라는 인물을 보고 한 눈에 반해 연정을 품게 된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P에게 고백하지만 P는 광호가 재능만 있을 뿐, 돈도 없고 용모도 뛰어나지 못하다면서 구애를 거절해버린다. 실의에 빠진 윤광호는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만다.

소설 <윤광호>는 도쿄 유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 청년들의 낭만적이면서도 퇴폐적

¹ 이 소설은 200자 원고지 45매 정도의 분량으로, 도쿄에 유학 온, 사랑갈기증에 빠져 있는 문길이라는 주인공이 하급생 소년 미사오를 짝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미사오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번민하다가, 미사오가 결국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에 철도 자살을 기도한다는 내용(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217-218쪽 참조바람)

² 산기준부는 '나와 춘원이 함께 하급생 熊谷直正이라는 소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술회했다.(秋山繁雄, <山崎俊夫>,<白金通信>, 1980.7.1)

인 사랑을 동성애라는 코드를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에게서 실연을 당하고 절망하는 광호를 보며 김준원 역시 자신이 십대였던 유학 초기 시절, 전도유망한 일본 청년이 자신을 사랑하다 자신이 받아주지 않자 폐인이 되고 말았던 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초까지 일본 청년 문화에 동성애적인 풍조가 낭만과 자유, 개성과 맞물려 유행하였고 이광수 역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P는 남자러라"인데, 누구나 이미 P가 남자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굳이 마지막에 그것을 밝히고 있음도 그러한 풍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 자체보다도 그 풍조나 수용에 갇혀 있는 것, 즉 개성과 자유,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인류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친우에 대한 사랑, 자기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만으로는 만족치 못'하여 동성애에 빠져 결국 자살을 택하는 윤광호에 비해 <어린 벗에게>에서는 주인공이 같은 도쿄 유학생 친구의 여동생을 사모하다 거절당하자 그 슬픔을 오히려 동족을 위한 사랑, 즉 계몽에의 헌신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벗에게>는 서간문 형식으로, 이미 조선에서 결혼한 기혼자인 주인공이 같은 유학생 친구의 여동생을 짝사랑하다 거절당하고 마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같은 유학생 김일홍의 여동생 김일련을 사랑하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보다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주인공의 고백은 좀 생똥맞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계몽으로 좀 더 확고해져 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만일 다른 무엇(아래 말하려는)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던들 나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로소이다. 그 '다른 무엇'은 다름 아니라, '동족을 위함'이로소이다. 마치 인생에 실망한 다른 사람들이 혹 삭발위승(削髮爲僧)하고 혹 자선사업에 헌심함같이 인생에 실망한 나는 '동족의 교화'에 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여 이에 나는 새 희망과 새 정력을 얻은 것이로소이다. 어린 벗에게 73-74쪽

(나)조혼과 정육

1차 유학시절인 1908년에서 1910년, 그 몇 년 동안의 어린 시절 이광수는 소설가로서 혹은 평론가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문필을 휘둘렀고 그의 일생을 통한 중심 주제의 하나였던 '情', '情育'이 벌써 이때의 그의 체질을 성격 짓고 있었다.



나츠메 소세키와 톨스토이에 이어 바이런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광수는 바이런의 <카인>, <해적>, <돈환>과 같은 시에 접하면서 청교도적 생활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비하여 악마주의가 얼마나 힘이 있고 깊은 것인지에 놀라면서 그의 생존의 방식을 읽었다고 했다. 그러나 춘원이 바이런에 탐닉했다는 것, 악마주의에 빠졌다는 것 등은 거의 사춘기적 성욕과 관련된 것에 멈추고 그것의 시대적인 특질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K(홍명희)를 통해 바이런을 알게 되었는데 이 바이런의 시와 악마주의는 자연주의와 함께 도쿄 뿐 아니라 세계를 휩쓸던 사조였다. 여기서 그의 초기의 '정육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今日我韓青年과 情育>(대한흥학보, 제10호, 1910.2)는 초기를 대표하는 정육론이다. 지금껏 교육의 주안으로 중시되어 온 지육, 덕육, 체육에 대하여 정육이야말로 교육의 대도라는 주장을 펼친 글이다. 그는 인간 행동의 원동력을 '情'에서 찾고 정육은 문학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다 하여 <문학의 가치>(대한흥학보, 제11호, 1910.3)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정육론은 전통 도덕과 교육론을 비판하고 개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문학을 통해서 이를 진작한다는 점에서 반전통적이며 서구 근대적 성격을 드러내는 주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낭만주의적 개인에 대한 이광수의 자각은 조선의 구습에 대한 반항과 비판으로 이어졌는데, 즉 조혼에 대한 비판과 정육에 대한 자각, 계몽이었다. 이광수의 2차 유학 시기에 해당하는 1917년에 발표된 <소년의 비애>의 주제가 바로 조혼이라는 구습에 의해 개성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청소년들의 아픔이다. 실연의 상처를 안고

2년 정도 일본 유학을 다녀온 주인공이 같이 어울려 놀던 형제자매, 친구들의 늙어버린 모습을 보며 '소년의 천국은 영원히 지나갔네'라고 한탄하는데, 사실 그들의 나이는 그 시점에 겨우 이십대 초반에 불과하다.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기를 포함, 동세대가 늙어버렸다고 자탄하는 심정의 바탕에는 조혼의 구습으로 인해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한 사랑했던 여인 난수의 희생에 대한 울분이 담겨 있다.

앞서 살펴 본 <어린 벗에게>도 조혼에 대한 비판이 논설조로 강하게 들어있다.

나는 조선인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맛은 못 본 조선인이로소이다. 조선에 어찌 남녀가 없사 오리카마는 조선 남녀는 아직 사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나이다. 조선인의 흥중에 어찌 애정이 없사오리카마는 조선인의 애정은 두 잎도 피기 전에 사회의 습관과 도덕이라는 바위에 눌러 그만 말라 죽고 말았나이다. 조선인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로소이다. 그네가 부부가 될 때에 얼굴도 못 보고 이름도 못 듣던 남남끼리 다만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 일생을 이 형식에만 속박되어 지내는 것이로소이다.(중략)이에 우리 조선 남녀는 그 부모의 완구(玩具)와 생식(生殖)하는 기계가 되고 마는 것이로소이다. (어린 벗에게)

그러면서 '나는 저 형식적 종교가 도덕가가 입버릇으로 말하는 그러한 애정을 일컬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애정-펄펄 끓는 애정, 뽀뽀 마르고 습습한 애정 말고 자릿자릿하고 달디달디한 애정을 일컬음이니 가령 모자(母子)의 애정, 어린 형제자매의 애정, 순결한 청년 남녀의 상사(相思)하는 애정, 또는 그대와 나와 같은 상사적(相思的) 우정을 일컬음이로소이다. 건조 냉담(乾燥冷淡)한 세상에 천년을 살지 말고 이러한 애정 속에 일일(一日)을 살기를 원하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잡을 직업은 아비, 교사, 사랑하는 사람, 병인 간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로소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그가 사랑의 상처를 민족 계몽으로 승화시켜 나아가겠다는, 이광수의 평생을 통해 드러났던 시혜주의적 계몽주의로의 분명한 입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에 오직 하나 믿을 것이 정신적으로 동포 민족에게 선(善)영향을 끼침이니 그리하면 내 몸은 죽어도 내 정신은 여러 동포의 정신 속에 살아 그 생활을 관섭(管攝)하고 또 그네의 자손에게 전하여 영원히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이로소이다. (어린 벗에게)

2. 염상섭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리고 <만세전>

1) 염상섭의 유학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8년 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을 통해 서양의 근대를 받아들였다. 그 당시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였는데, 염상섭이 식민지 상황에서 당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염상섭은 1897년 8월 30일에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부친 염규환 모친 경주 김씨의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호(號)는 횡보(橫步)였으나 주로 필명 상섭(想涉)으로 행세했다. 1911년 普成小學校를 졸업한 염상섭은 바로 普成中學校에 입학하였고, 입학한 지 1년 만인 1912년 15세 때에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난다. 도쿄에서 6개월간 일본어 공부를 한 이후 1913년 도쿄에 있는 아자부중학교(麻布中學校) 2학년에 편입한다.

1914년에는 우등생 학비면제를 바라고 아자부중학교에서 그리스도교 계통의 세이가구인중학교(聖學院中學校) 3학년에 편입한다. 세이가구인중학교에 편입한 염상섭의 학교 성적은 「언제나 평균 90점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3,4등」³을 유지했다. 염상섭이 일본인 학생들과 더불어 도쿄의 미션스쿨 중학교에 다니며 평균 90점이 될 정도로 3,4등을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히 명석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15년 19세 때에 세이가구인중학교를 수료하고, 일본 육사26기생인 만형 염창섭이 육군장교로 근무하는 교토(京都)로 이동하여 동년 9월에 교토후리쓰제이중학교(京都府立第二中學校)에 입학한다. 일본군 육군 중위 만형 염창섭의 도움으로 정규 명문 중학교인 교토후리쓰제이중학교에 염상섭이 들어간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전교생 800명 중 외국인은 오직 염상섭 단 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이 중학교 재학 시절에 일본어만 구사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일본어 구사 능력을 끌어올리는 혜택을 동시에 누렸다. 교토후리쓰제이중학교에 재학 중에 우리나라의 설날 행사와 풍습을 그린 「우리집 정월」이란 여섯 장짜리 수필을 발표했다. 염상섭은 이 수필 발표로 전교에서 글짓기를 제일 잘 하는 학생으로 인정받게 되어, 교문을 지키는 일본인 수위까지 「“렌상(廉さん)” 하면서 인사」를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염상섭은 앞서 말한 대로 1912년 열다섯 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때 염상섭은 '무

³ 이보영 『난세의 문학』(예림기획, 2011.03) p.3

슨 큰 꿈을 품은 것도 아니고 학우가 끄는 대로 좋다구나 하고 따라 나섰다. 다만 마음의 의지는 먼저가 있던 두 형님이 있었다.⁴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이후 그는 만형 염상섭이 있는 교토에 갔고 교토부립제2중학에 들어갔다. 교토부립제2중학교가 일반 미션중학교와 다른 정규 일본중학이었던 점을 생각할 때 염상섭은 교코에서 단연 격이 다른 학교를 다녔다고 할 것이다. 교토부립제2중학교는 염상섭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지만 동시에 일본 육군 보병 중위인 만형의 존재감은 그에게 수치심을 주기도 하였다. 소설 <만세전>에서도 칼을 찬 형을 만나 그 타락성을 조소하는 주인공은 23세 염상섭의 문학적 투영이기도 하다.

1918년 3월 교토부립제2중학교를 졸업하고 염상섭은 1918년 3월 교토후리쓰제이중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되돌아온다. 1918년 4월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学) 文科豫科에 입학한다. 그가 게이오기주쿠대학 문과 예과에 다닌 것은 1918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정도이다. 그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병으로 퇴학하였다. 이듬해 3·1운동이 일어나자 오사카[大阪] 천왕사 공원에서 시위를 계획했으나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후 염상섭은 요코하마(横濱) 인쇄공장에서 직공 노릇을 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이 창간되는 <동아일보>의 기자로 임명되어 1920년 귀국하였다.⁵

2)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근대적 개인주의

1905년부터 1925년까지 일어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다이쇼(大正, 1912-1926까지 일본의 연호)시대에 일본에서 번성했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향과 사조를 총칭하는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보통 선거제도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를 둔 의회중심정치, 외교면에서는 무단적인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종단을 요구하는 의견, 사회면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 등 사회권의 승인,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의 폐절, 피차별 부락민의 해방, 남녀평등권 등, 문화면에서는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자유교육, 대학의 자치, 미술단체의 문부성 지배로부터의 독립 등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자유적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운동이 자주적으로 전개되었다.⁶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하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한달 뒤,

⁴ 염상섭, <별을 그리던 시절>, 지성 겨울호 제2호, 1958, p81

⁵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29

⁶ 下中弘, 世界百科事典 16, 平凡社, 1995, PP631-632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여명회(黎明會)를 결성하여 보통선거 운동이 국민적으로 변화되었다. 언론과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민중의 실력으로 확대되어 사회주의 영향력이 커졌다. 1919년에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 전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2년 뒤 일본에서는 요시히토의 아들 오무로 히로히토(大室裕仁)가 섭정으로 임명되었는데 섭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이 발생하여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하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1900년대 약 20년 간 한일 양국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근대적 사고와 문화를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회적 변화였음은 분명하다.

염상섭은 중산계층 출신의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였다. 염상섭의 증조(曾祖) 염재진이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이고, 조부(祖父) 염인식은 벼슬 없이 지냈으나 부(父) 염규환은 군수를 지냈다. 이 사실로 집안이 서울 토박이이고 중산층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염상섭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할아버지가 한자를 가르쳤고 그 속에서 봉건적인 유교적 습속을 배웠다. 그런 그에게 일본 유학을 통한 새로운 근대적 교육과 사회 풍조는 그로 하여금 개인과 자유, 문학을 알게 한 결정적 동인이었을 것이다.

염상섭에게 근대는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한 해방자, 즉 개인의 해방이었다. 일본 유학생 염상섭은 동경(도쿄)이라는 자유의 근대 세계의 한복판에서 주체의 자기보존과 자기파괴라는 주체성의 파토스를 경험하였을 것이다.⁷ 더욱이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분위기는 일본의 신문, 잡지를 통해 세계 정세를 읽고 있던 조선인들을 고무시켰다. 그리고 한국 사상 최초의 저속적, 전민족적 민주운동인 3.1운동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세계 개조의 시기는 독립운동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결심을 가능케 하기도 하였다.⁸ 그 환경에 염상섭이 있었다.

⁷ 김형수, 염상섭, 예술, 근대성-1920년대 염상섭 비평, 사림어문연구 12집, 1999, PP3-5

⁸ 박노자, 한국적 근대 만들기 IV-1920년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형(型) 개인주의 : 염상섭의 <만세전>, 월간 인물과 사상, 2002 4월호, p79



3) 식민지 지식인의 개인주의

염상섭은 자신을 '나는 똑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보통 인간이고 중간치 정도였지 중뿔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염상섭의 특유의 자기 드러내기 방식으로 기실,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탁월한 오만과 자만심, 세련과 간사함의 뒤틀림의 소산이다.⁹ 염상섭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인물이었다. 혼자 시위운동을 벌였던 일은 단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여준다.

그는 <기독교청년> 제6호 (1918.4)에 기고한 <玄相允氏의게 與하여 '現時 朝鮮靑年과 可人不可人の 標準'을 更論함>이라는 글에서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는 인격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는 현상윤의 글에 대해 반론을 펴면서 사회적 公利만을 최우선하여 개개인을 "可人"과 "不可人"으로 재단하게 되면 '自己의 使命과 天稟의 才質'을 발견하여 '自己의 適合한 順路'

⁹ 김윤식, 앞의 책, p15

를 모색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功名에만 충실한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儒敎의 폐습(弊習) 혹은 봉건 시대의 표준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것, 그는 '오히려 외견상 社會와 密接한 利害가 업는 듯한' 개인의 노력이 실은 가장 긴요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한다. 문학이나 예술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염상섭의 비판은 당시 정치나 경제, 법률학에 문예 방면의 전공을 소홀히 하는 유학사회의 세태를 비난함과 동시에 문학예술 등 미적 영역의 자율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¹⁰를 보이는 것으로 당시 달라진 유학생의 의식을 보여준다.

그는 <개성과 예술>(개벽 22호, 1922.4)에서 '노예적 관습', '기성적 관념', 그리고 '偶像의 權威'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건설이 생활의 '몫'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적 삶의 근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개성'의 자유로움, '자기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개성의 가치발현은 비생명적 규범체계를 거부하고 청산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 즉 '개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생명 실현을 차단했던 '권위와 초자연적 일체'에 맞서기 위해 우선 회복해야 할 인간성이었으며 자각된 개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4) <萬歲前>과 개인

<萬歲前>은 제목 그대로 1919년 3.1만세운동이 있기 전 해인 1918년 겨울,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열풍이 휩쓸던 도쿄와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인 유학생의 내면과 현실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 겨울이다.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어서 세상은 비로소 변해진 듯 싶고, 세계개조(世界改造)의 소리가 동양 천지에도 떠들썩한 때이다.

<만세전>의 첫부분이다. 주인공인 이인화는 1918년 도쿄 W 대학 문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나오는데 작가인 염상섭 역시 실제로 1918년 당시 게이오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만세전>'의 주인공처럼 일본에서 유학한 염상섭 자신은 물론, 주로 일본(매체나 일본에서의

¹⁰ 이철호, 1910년대 후반 도쿄 유학생의 문화인식과 실천-'기독교청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집, 2008.12, P344

유학)을 통해 세계 정세를 읽어야만 했던 3.1운동의 주도자들에게도 세계체제의 새로운 분위기(세계 개조의 소리)를 알려준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일본에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열풍이었다.¹¹

하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소위 개성은 당시 '개인주의가 사회, 정치적으로 진지하고 자유로운 자아 표현을 하기가 힘든 고질적인 권위주의 사회'였던 일본에서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다. '결국, 여러 한계로 말미암아 다이쇼의 보편적인 개인주의는 유럽처럼 개인을 억압하는 부르조아 국가 사회의 일체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즐길 것을 충분히 즐기며 사는 "틈새찾기"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 "모보(modern boy)"와 "모가(modern girl)"처럼 다이쇼 시대에 장안의 소문거리가 되었던 젊은 개인주의자들은 노조에서 활동하거나 돈 욕심에 물들지 않은 프롤레타리아 미술을 탐구하지 않았다. 대신 카페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성교제와 에로틱 문학, 그리고 서양의 최신유행 의류 등을 최대한 즐기며 고등교육이 보장하는 "출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¹²

아직까지도 조선 유학생이라면 돈 있는 집 자질이요, 인물 좋다고 동경 바닥서 평판이 좋은데, 문과 대학생이 이런 데에서는 장을 치는 '태평성대'다. 나는 동창생들에게 끌려 우연히 와본 뒤로 벌써 반년 가까이 드나드는 동안에 이만큼 친숙하여졌다. 이런 자유의 세계에서만도 얼마쯤 무차별적이요 노골적 멸시를 안 받는 데에, 감정이 늙어지고 마음이 슬깃하여 내 발길은 자연 잦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인화는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기간 당시 유산층 유학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것이다. 그는 조혼 제도에 따라 결혼한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무관심을 표할 만큼 사회로부터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논리를 지닌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집안과 충돌을 빚을 의도는 없다. 이인화는 '스스로가 이지적이고 타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인간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도 그 논리에 맞추어 생활하는 인물이다. 이 근대적 정신의 소유자(더구나 그는 일체의 현실적인 정치적 전망이 봉쇄되어 있는 식민지의 청년지식이다)에게는,

¹¹ 박노자, 앞의 글, p78

¹² 박노자, 위의 글, p80

따라서 민족이니 사회니 하는 것이 틈입할 여지가 없다.¹³

하지만 이인화가 문제적 주인공으로서 근대적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지 '대중문화(특히 성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해주는 카페)속에서 매우 저(低)차원의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한 데에 만족하며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질서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데만 그의 인식이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끓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긴요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이러한 자각, 즉 <만세전>이 거둔 '당대 현실의 포착은 그 자신까지도 사고와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근대적 자아(이인화)가 그 냉정한 시선(현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표상으로서의 근대사회(東京)와 실재로서의 전근대 식민지(조선)의 낙차를 조망하는 과정[旅路]에서 촉발됨으로써(삽화적 구성)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만세전>을 旅路形 소설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향하는 이인화는 뱃길과 물길을 두루 거치며 갖가지 상황과 사건을 보고 겪는다. 그러면서 그는 변한다.

그러나 애초에 비록 관념적이고 따라서 실감이 안 나고 사실 그래서 그의 고민은 더욱 자욱한 안개 속이었을 테지만 이인화의 변화의 조짐은 이미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에 기인한다.

¹³ 유문선, 3.1운동 전후의 현실과 문학적 대응, 새민족문학사 강좌 02, 창비, 2009, p103

¹⁴ 유문선, 앞의 글, p103

스물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지, 인간성이 어떠한지, 사회가 어떠한지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詩)니 소설이니 한 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문학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과 불안은 구체적인 여행, 감각적인 따라서 실증적인 여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는데 그 자각의 일차적은 표출은 분노이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추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에'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버려라 !'

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이 분노는 이광수처럼 타자 즉 조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혜적 계몽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그 분노는 잊고 싶었던 나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인화는 아내 장례를 치르자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갈 궁리를 한다. 서둘러 떠나는 그에게 형이 내년 봄에 돌아와 다시 장가들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그는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들러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고 웃어버린다.

여기서 이 소설 제목이 왜 "만세전"인가가 중요해진다.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만세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 1918년 겨울 한 조선 청년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그렇다면 만세 후, 즉 1919년 3.1운동 이후의 이 조선 청년이 내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작품의 첫머리를 보면, 이 소설의 화자는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919년 3.1운동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굳이 1918년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이

유가 무엇일까?

언젠가 이따위의 산문시조이나 쓰던, 자기의 공상과 값싼 로맨티시즘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조선으로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나기 전, 東京에서 이미 이인화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관념성과 값싼 로맨티시즘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나 그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 부끄러움이 분노를 겪으면서 다시 구체적인 부끄러움으로 전화했다. 따뜻한 봄이 와서 별장이나 장만할 때쯤 돌아오겠노라는 이인화의 심정은 어쩌면 부끄러움일 것이다.